

동아시아(한중일) 통합지수 개발*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종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정재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수료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 내 통합 정도를 보여 주는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계열 추이를 볼 수 있는 통합 지수를 구축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경제적 분야 외에도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분야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삼국의 통합 개념을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으로 나누고, 적절한 변수를 각 분야마다 선정하였다. 구축된 통합지수를 보면, 삼국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통합지수 모두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2016~2017년에 약간 상승하였으나, 각 통합지수가 등락하는 시점은 일치하지 않았다. 세 분야의 통합지수를 모두 합산한 전체 통합지수도 2000년대 초반 대비 2016년에 약간 상승하였으며, 비록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삼국의 통합 수준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방법을 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장한 통합지수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제어 한중일, 동아시아, 경제통합, 정치통합, 사회문화통합

I. 서론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의해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내 통합(regional integration)에 관한 학계와 대중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 광범위한 물적 및 인적 교류

*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924523). 이 연구는 2017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0448A-2017004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¹ 지역 내 통합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유럽 연합의 공식 출범 때문만은 아니다. 유럽 내 통합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1951년 설립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유럽 연합 출범 이전에도 기타 지역에서의 역내 통합에 대한 열망은 뜨거웠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960년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을 시작으로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와 재정 및 금융 분야의 통합 등을 이룬 유럽 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통합을 이룬 기구로 평가받고 있다.² 이에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아시아 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창설된 통합을 위한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같이 동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기구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 아시아 지역의 일부만 포괄하는 하위 개념의 통합기구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통합의 형성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정립된 다양한 이론 가운데 특히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이론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공동체 개념으로서 흘러넘침(spillover)을 그 근본적 작동 원리로 삼는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국가 간 경제통합의 정도가 깊어지고 나면, 결국 통합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가 흘러넘쳐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Haas, 1956; Balassa, 2013; Rosamond, 2000; Schirm, 2002; Soderbaum and Shaw, 2003; Hettne, 2005).³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신기능주의 이론을 기타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아시아의 경우,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국제정치적 사건과 1980년대 냉전의 종식에 더해 1990년대부터 세계화가 화두로 떠오르며 역내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⁴ 덧붙여, 1990년대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지역 내 상호 협력 및 통합에 대

Market) 및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 등이 잇달아 창설되었다.

² 물론,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 및 2016년 브렉시트(Brexit) 사태 그리고 2018년 이탈리아와 유럽 연합의 예산 분쟁 등 역내 통합의 부작용 역시 존재한다.

³ 다만, 21세기 들어 통합의 분야와 규모가 매우 커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양한 통합기구가 창설되며,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확대에 따라 국가 간 경제활동의 상호 연관성이 증가하면서부터 신기능주의를 보완하여 이러한 추세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⁴ 아시아 지역 내 통합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거나, 이해관계가 맞물린 일부 국가들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Dieter, 2007; Francois et al., 2009; Park et al., 2011; Fujita et

한 필요성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을 유럽 연합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시아 지역 내 통합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조건 등은 유럽과는 분명히 다르다. 대표적으로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인적 이동의 장벽이 높으며, 국가 간 발전 정도의 차이도 매우 불균형적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 지역 내 통합 양상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만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줄 새로운 통합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

II. 연구목적 및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 내 통합 정도를 적절히 보여 줄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지수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⁵ 본 연구에서 고려한 아시아 국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아 역내 통합 수준을 대변하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신 먼저 상호 간 관련성이 높은 특정 집단을 선별하여 통합지수의 구축과 설계에 보다 집중하였다. 이에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⁶

첫째, 역사적 및 지리적으로 한중일은 한자 및 유교 문화권으로 분류되어 지난 수천 년간 끊임없는 교류와 영향을 주고받았다.⁷ 둘째, 동북아 삼국 간 경제적 의존도 및 거래 규모는 아시아 내 기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경제가 일정 궤도에 안착하며 성장 속도가 더해진 한국과 일본은,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발전 중인 중국 시장을 출구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삼국 간의 긴밀한 무역 관계는 분업, 협력 구조인 역내 가치 사슬(Regional Value Chain)로 대변되고

al., 2011; Pomfret, 2011).

⁵ 유럽의 경우, 신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역내 경제통합의 흘러넘침(spillover)에 따른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Letki, 2008; Vergolini, 2011).

⁶ 이하 본문에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한중일 혹은 동북아로 지칭한다.

⁷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류와 상호영향의 의미는 전쟁이나 교류협력 혹은 조공책봉관계 등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있다. 셋째, 한중일 삼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말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에 따른 과거사 갈등 및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수많은 이슈가 상존하고, 때에 따라 통합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국 간의 통합 정도를 추론하는 것은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이다.

한편, 동 지역의 통합지수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경제적 측면만 주목하는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도 조명한다. 이는 한중일 간의 통합 과정에는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사건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 효과가 정치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통합을 증진할 가능성이 있는 등 세 가지 분야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합지수 구축을 위한 개략적인 연구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먼저, 김병연 외(2009)가 제시한 통합 과정의 두 축인 제도적 및 관계적 통합을 이용하여 각 분야별 통합 수준을 분석하였다.⁸ 여기서 제도적 통합이란 한중일 삼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상호 간 놓여 있는 최적의 경제, 정치, 사회활동에 대한 인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삼국 간 회담을 언급할 수 있는데, 다양한 직급과 분야에서의 만남을 통해 상호 간 존재하는 비용과 장벽 등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계적 통합이란 한중일 삼국의 교류 규모가 증가하거나 주요 지표에서의 수렴 현상이 강해짐을 의미한다.⁹ 경제 분야의 경우 한중일 간 무역 비중이 확대될 때 관계적 통합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념적 틀은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의 구성은 각 분야마다 다르다. 이는 모든 분야에 통일된 규칙과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연구의 자유도를

⁸ 각 분야별 관계적 및 제도적 통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변수는 각 분야의 지수에 관한 자세한 논문인 김소영·정재호(2020), 김종호(2020), 그리고 이승원·김예하(2020)를 참조.

⁹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별로 요소와 축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산정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소영·정재호(2020), 김종호(2020), 그리고 이승원·김예하(2020)를 참조.

낮추게 되어, 오히려 각 자료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¹⁰ 다음으로, 각 분야별 제도적 및 관계적 통합 수준과, 이를 합산한 통합 지수를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내어 그 변화 양상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표를 통해 각 변수의 연도별 점수를 제시함으로써 통합 수준의 세부적인 변화도 함께 보고하였다.¹¹ 마지막으로, 각 분야에서 도출된 자료를 통해 한중일 삼국의 전체적인 제도적 및 관계적 그리고 종합적 통합지수를 구축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 프로젝트에서 구축된 한중일 통합지수의 시계열은 다음과 같다.¹² 그림 1과 같이 한중일 경제통합지수의 추이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2008년에서 2011년까지가 가장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2012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7년에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수의 등락현상에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제도적 통합지수를 구성하는 회담, 관세, 수입규제 중 회담 점수가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매우 높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같은 기간 동안 관계적 통합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수렴 항목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경기변동 동조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중일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전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삼국의 통합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전 수준으로

¹⁰ 예를 들어, 경제 분야의 수출과 주식 수익률은 서로 다른 속성의 자료이므로 변수의 가공 및 점수 처리 방식 등을 같게 만들 수 없다. 수출의 경우 세계 대비 삼국 내 비중이 적절한 반면, 주가 수익률의 경우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¹¹ 김소영·정재호(2020)의 <부록> 참조.

¹² 각 분야의 통합지수들 중 2000년 초부터 시계열을 보여 줄 수 있는 지수 중 가장 포괄적인 지수를 선택하여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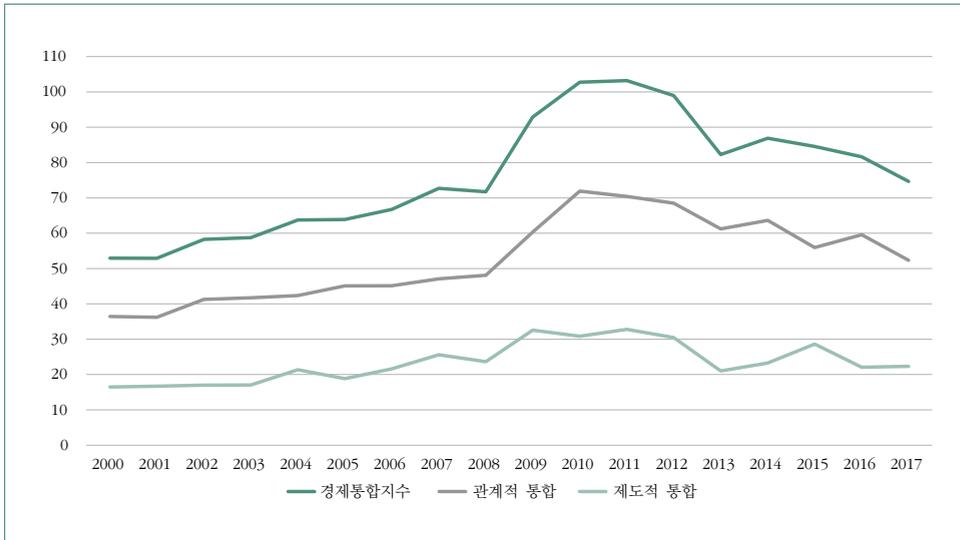


그림 1 한중일 경제통합지수 추이(250점 만점)

의 정상화 과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결국 2017년 통합지수는 2000년에 비해 더 높기는 하지만 2010년과 2011년에 보여 주었던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¹³

정치통합지수의 추이는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나 하락과 같은 큰 변동 없이 주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급격한 하락을 보였지만 2017년에 다시 회복하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삼국 간 신뢰구축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듯하다가도, 탈식민적 과제로서의 역사문제(역사 교과서, 위안부 문제, 영토 문제 등)와 탈냉전적 과제이자 삼국을 넘어선 글로벌의 제로서의 지역 안보의제(북핵문제, THAAD 배치, 주한미군 배치, 일본 평화헌법 개정, 군사동맹 등)에 기반한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적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그 틈새나 사각지대, 때로는 제도를 부정하면서 발생하는 동북아 차원의 고유한 정치적 특징이며 동북아 정치통합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¹³ 경제통합지수 추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소영·정재호(2020) 참조.

¹⁴ 정치통합지수 추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승원·김예하(20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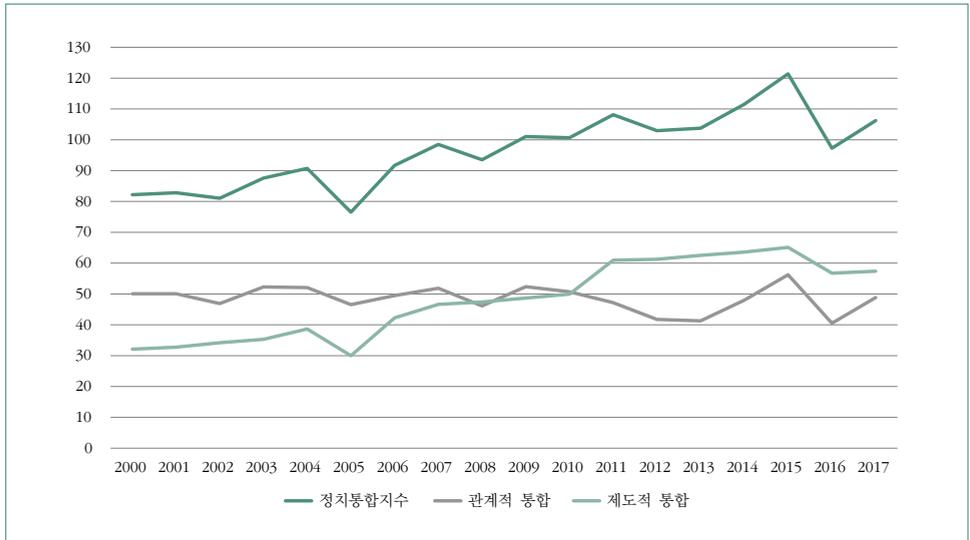


그림 2 한중일 정치통합지수 추이(250점 만점)

사회문화통합지수 역시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2004년과 2005년 사이 급증한 이후 2008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이후 2011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013년 이후 다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등락 현상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2004년에 비해 2016년의 통합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4년 이후 통합 정도가 약간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의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문화분야의 통합지수는 제도적 통합보다는 관계적 통합과 수렴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2015년까지는 수렴지수의 증감이 전체 사회문화통합지수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이후 2016년의 지수에서는 수렴지수가 하락한 반면, 사회문화 전체지수는 관계적 통합지수의 영향을 받아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관계적 통합의 주요 지표인 인적이동과 비행편수의 증가가 서서히 증가한 영향과 더불어 수렴의 교육기관 관련 지수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¹⁵

¹⁵ 사회문화통합지수 추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종호(20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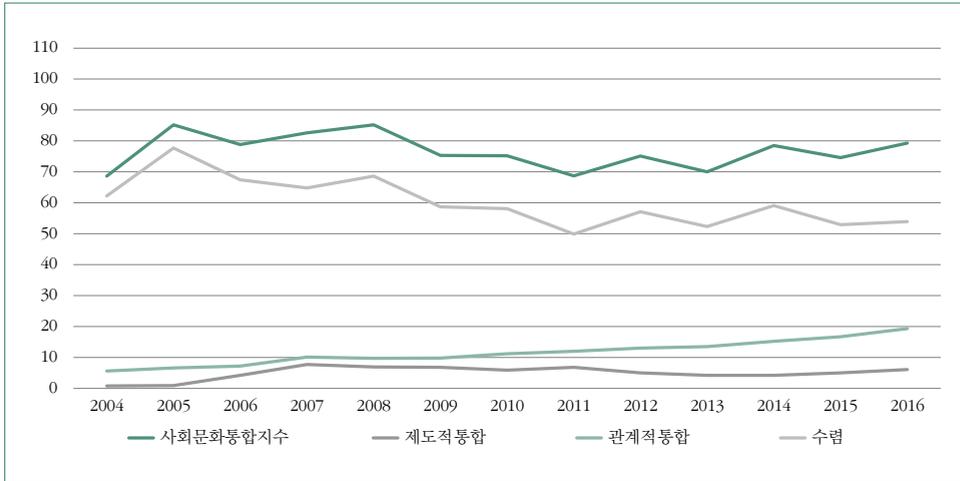


그림 3 한중일 사회문화통합지수 추이(25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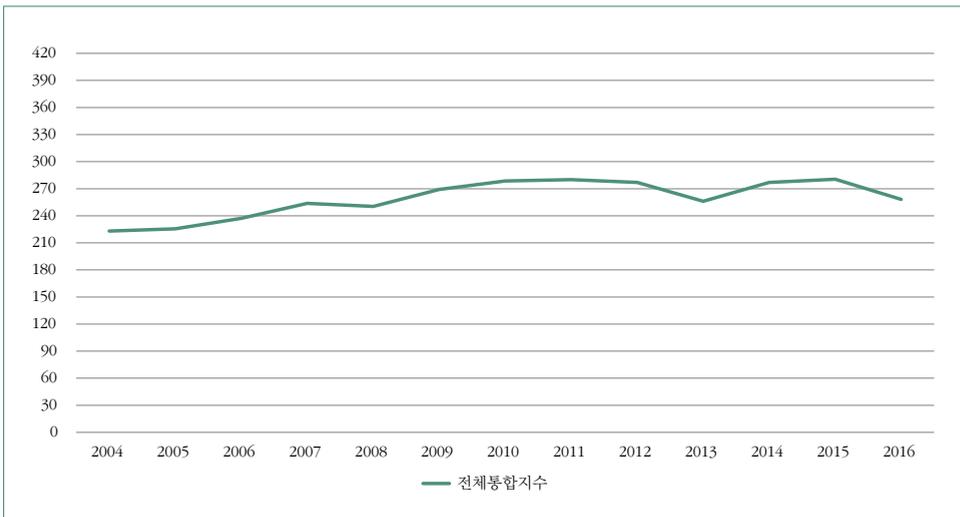


그림 4 한중일 전체통합지수(750점 만점)

경제, 정치, 사회문화통합지수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면 세 분야 지수가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2000년대 초에 비해 세 분야 모두 통합지수가 더 상승했고, 결국 모든 분야에서 약간이라도 통합 정도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세 분야의 지수를 합산한 한중일 전체통합지수를 보여 준다. 전체지수는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2013년에는 약간 하락, 2014년과 2015년에는 약간 증가, 그리고 가장 최근 연도인 2016년에 약간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2004년에 비해서는 통합지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2011년과 2015년의 최대치에 비해서는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각 분야 통합지수의 증감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각 분야별 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I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줄 새로운 통합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및 관계적 통합이란 개념적 틀에 맞추어 한중일 삼국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한중일 통합지수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통합지수 구축 작업을 통해 각 분야에 관한 한중일 간 통합의 수준을 추론하고 분석하였다.

지역통합연구에서 통합지수의 도출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현시점에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 내 통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러한 연구의 활용방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통합지수의 구축은 해당 지역 내 통합의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지역 내 통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보여 준다. 또한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 본 연구의 경우 전체 통합지수뿐 아니라 각 분야별 통합지수 역시 개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각 분야별 통합 정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고,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어 학계뿐 아니라 정부기관, 시민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동북아시아, 특히 한중일 삼국의 경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치, 안보, 역사인식 등의 분야에서는 때로는 심각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한 이유로 동북아 지역의 통합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이를 토대로 향

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한국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지역 내 안보 및 평화와 관련된 한중일 공동의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일 삼국의 통합지수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온 통합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만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동북아 통합 양상의 평가와 전망에 주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료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회담 변수의 정성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실제 회담과 합의서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적절한 회담 변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적 및 관계적 통합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각 분야별 전체 통합지수에 중복 계상(double counting)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분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전체통합지수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된다면 보다 적합한 지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적이 아시아 역내 통합 수준을 대변하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한중일 삼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지수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전체 국가에 대한 통합지수 외에도 양국 간의 통합지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투고일: 2019년 11월 11일 | 심사일: 2019년 12월 9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월 29일

참고문헌

-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2009.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소영·정재호. 2020. “한중일 경제통합지수 개발.” 『아시아리뷰』 9권 2호, 307-331.
- 김중호. 2020. “한중일 사회문화 통합지수 개발모색.” 『아시아리뷰』 9권 2호, 365-388.
- 천경효·조동준·김병연·김학재·안소연·이종민·조용신. 2018. 『2018 남북통합지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이승원·김예하. 2020. “한중일 정치통합 가능성과 포용적 과제: 통합지수 개발의 비판적

접근.” 『아시아리뷰』 9권 2호, 333-363.

- Balassa, B. 2013.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routledge revivals). New York: Routledge.
- Dieter, H. 2007. *The Evolution of Regionalism in Asia: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New York: Routledge.
- Francois, J. F., G. Wignaraja, and P. B. Rana. 2009. *Pan-Asian Integration: Linking East and South Asia*. New York: Springer.
- Fujita, M., I., Kuroiwa, and S. Kumagai. 2011. *The Economics of East Asian Integration: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Regional Issue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Haas, E. B. 1956. “Regionalism, Functionalism, and Univers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Politics* 8(2), 238-263.
- Hettne, B. 2005. “Beyond the ‘New’ Regionalism.” *Key Debates in New Political Economy* 10(4), 136-168.
- Letki, N. 2008. “Does Diversity Erode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Race in British Neighbourhoods.” *Political Studies* 56(1), 99-126.
- Naeher, D. 2015. “An Empirical Estimation of Asia’s Untapped Regional Integration Potential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sian Development Review* 32(2), 178-195.
- Park, J., T. Pempel, and H. Kim. 2011. *Regionalism, Economic Integration and Security in Asia: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Pomfret, R. 2011. *Regionalism in East Asia: Why Has It Flourished Since 2000 and How Far Will It Go?* NJ: World Scientific.
- Rosamond, B. 2000.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Schirm, S. 2002. *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Global Markets, Domestic Politics and Regional Cooperation*. Cambridge: Polity.
- Soderbaum, F. and T. M. Shaw. 2003. *Theories of New Regionalism*.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UK.
- Sperlich, Y. and S. Sperlich. 2012. “Practical Tools for Monitoring Convergenc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mpare and Apply.”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14(1), 72-103.

te Velde, D. W. 2005. *Regional integration and poverty*.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Briefing Paper.

Vergolini, L. 2011. "Social Cohesion in Europe: How Do the Different Dimensions of Inequality Affect Social Cohe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2(3), 197-214.

Abstract

Comprehensive Integration Index for East Asia

Soyo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JongHo Kim Sogang University

Jaeho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eveloped the conceptual model that revealed the degree of integration within Asia, and constructed the comprehensive integration index representing its dynamic change. First, this paper selected South Korea, Japan, and China as sample countries. Second, it analyzed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fields together. Third, it divided the concept of integration into institutional and relational integration, and then, appropriate variables were selected for each field. According to the integration index, the three integration indexes rose slightly in 2016-2017 in comparison to the early 2000s, but the timing of fluctuations of each index did not coincide. The comprehensive integration index, which consisted of three fields, also increased slightly in 2016 in comparison to the early 2000s. Thus, the degree of integ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increased over time even though it was weak. The methodology that was developed in this research project is expected to be extended to more Asian countries in the future.

Keywords | Korea-Japan-China,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Political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